

# 사람을 존중하는 신념으로 ...

## 신 경 희 사장



- 약력 : 1947년 영남대 상경대 졸업
- '79년 우림화학공업(주) 대표
- '89년(현) 대진전자공업(주) 대표

### 귀사를 설립하게 된 동기는?

FA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여 이를 사업으로 연결시킨다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전망했으며, 특히 우리 회사의 주종품인 전류센서의 경우 100% 수입에 의존해 있음으로 막대한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해당기술의 파급효과로 그 적용범위는 거대한 잠재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요즈

음 이 분야의 품목들이 정부로부터 국산화개발 대상품목으로 고시됨을 계기로 포항공대와 자사 부품의 산학공동개발에 착수, 이를 국산화 하는데 성공하여 시제품을 생산함과 동시에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최초로 첨단부품의 국산화에 성공, 고가의 첨단장비에 자사의 기술제품을 장착시키게 된다는 자신감과 긍지로 가슴부풀었던 그때의 감회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 귀사의 중점 개발분야는?

홀소자를 이용한 전류센서입니다. 특히 고용량, 고안정용, 초정밀용을 포함한 모든 전류센서를 이용한 「전원공급장치」도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으며 초경박형 전원공급장치도 차기 아이템으로 선정하여 마무리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 지향적이 아닐 수 없는 만큼 기존시장에서 경쟁을 하려면 가격이나 기술(제품)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H/W보다는 S/W쪽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겠지요.

### 사업전략은 어떻게 전개하고 계시는지요?

장기전입니다.

일본이 최대의 경쟁대상인데, 이미 우리 제품을 의식한 덤핑공세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내의 대다수 실수요자도 아직은 외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다분하지만 외제에 비해 훨씬 값싸고 성능이 우수한 우리 제품이 실험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으로 그들도 점차 우리 국산부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인이, 과

거에는 주로 자본·노동의 비교 우위에 의한 가격 경쟁력이었으나 이제는 두뇌·지식·정보를 주축으로 한 기술경쟁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제는 기술을 핵으로 하는 경쟁만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차기 아이템의 선정에 있어서도 가급적 관련기술과 호환성이 있고 상호 접목할 수 있는 것으로 고부가 품목을 채택코자 합니다. 가령, 자사가 생산하는 부품을 팔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자사가 생산하는 다른 기기에 바로 적용시키면 핵심부품의 원가절감과 부품수급의 용이성이라는 이중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품목 중, 부품의 경우는 그것이 하나의 독립된 상품이 아님으로 이를 사용하는 대장기기를 제조하는 업체의 생산 및 개발계획의 정보를 적시에 입수, 적절히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가령 그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속에 우리 부품을 응용할 수 있도록 직접 씨키티 해 주면서 그 기기의 개발을 촉진시키게 하는 보다 적극적인 판매전략도 매출증진을 위한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 연구개발 실적은?

홀소자를 이용한 0.01%~0.001%급의 초정밀 전류센서, 1000A 이상의 고용량 전류센서와 이를 응용한 고안정 전원공급장치의 S/W 개발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마이크로 컴퓨터에 의해 조정되는 PC 및 산업용 컴퓨터에 내장용으로 사용되는 초경박형 최첨단 전원공급장치의 S/W 개발이 약 7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 경영여건에 대한 전망은?

제정면에 있어서는 당해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정부가 다각적으로 지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기에 어느정도의 활용이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입지조건으로는 대구지방에 첨단산업단지 및 첨단연구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회사도 이 단지내에 입주키로 되어 있음으로 지금까지 전자산업의 정보 및 지리적 낙후지역으로써의 불이익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단지내 관련기업들간의 상호 교류도 보다 윤택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장님의 경영철학은?

우선 여성이라는 핸디캡을 커버하기 위해서 남성보다 노력을 배가 해야겠지요.

굳이 저의 경영철학을 말씀드린다면, 「사람을 중히 여기자」라는 신념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진공관을 트랜지스터로 바꾸어 세계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Sony에서 일용근로자인 제품소제부에서 정식발령장을 교부하고 그 부서의 팀장을 간부회의에 참석시켜 제품을 청결하게 하는 일도 결과적으로는 전공정에 얼마나 중요한 몫을 하는 것인가를 인식 시킴으로 그들로 하여금 소속감과 사명감을 고취, 이적률을 제로화 했다는 글을 읽고 인간중시의 경영이 곧 기업을 성공으로 이르게 하는 척도라고 늘 인식하고 있습니다.

### 중장기 사업계획은?

이제 설립한지 이년이니 기초공사가 완료된 단계라고 봅니다.

이 반석위에 한층 한층 건물을 쌓아올리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상당액의 수주가 예정되어 있는 고안정-전원공급장치의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차기 아이템이 '93년도 생산에 들어가면 전원공급장치의 거대한 시장속에 우리의 신기술품이 출현하여 본격적인 기술, 가격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합된 의지로 부단히 기술을 축적시키고 나아가서 여건이 성숙되면 외국관련기업과의 합작 등을 통해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이들 합작사의 영업망을 이용, 수출물량을 늘리는 전략도 병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R&D 분야의 투자를 최소한 10%이상 할애할 생각입니다.

### 정부당국에 바램이 있다면?

신기술,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는 대체로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역개방의 조류에 따라 신기술 등의 보호정책이 실제로는 미흡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국산화된 신기술이 몇년간은 수입금지, 또는 관세인상, 중복제도금지 등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기에는 많은 난점이 있다는 것인데, 수입금지가 곤란하다면 이들 품목에 대해서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정부가 추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일정기간 간접적으로나마 보호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특정업체가 아닌 특성품목에 대해서 말입니다.